

Auroville

is a culture still to be invented



오로빌은 아직 창조되어야 할 문화입니다.

현재 많은 문화들이 남부 인도의 시골에 세워진 환경에 끼어들고 있습니다. 영어를 여러 액센트로 들을 수 있지요- 불어식, 이태리식, 독일식, 타밀식, 미국식, 벵갈식, 러시아식, 한국식, 등등. 때때로는 영국식 영어도요. 아침 6 시에 마을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에 깨서, 9 시에 발레 수업을 들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. 점심때 삼바를 먹고, 오후 5 시까지 컴퓨터로 일합니다. 오토바이 타이어가 핑크 난 것을 발견하고 가까운 수리점에까지 숲속을 지나 2km 를 끌고 가거나, 푸두체리까지 끌고갈 우마차를 발견합니다. 저녁때 미래의 詩나 베다에 대한 좌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재즈 콘서트에 가거나 첸나이에서 온 락 밴드, 드루파드 공연, 벵갈지역에서 온 바울, 혹은 바하를 들으러 갑니다. 밤새도록 마을에서 연극축제가 있을 수도 있고, 오디토리움에서 '고도를 기다리며'를 공연할 수도 있고, 매혹적으로 램프에 불을 켜놓고 사원에서 춤 공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
오로빌은 아직 창조되어야 할 문화입니다.

설날에는 원형극장에서 큰 화롯불 bonfires 을 피우고, 오로빌의 탄생 기념일에는 조용히 모이며, 디파발리에는 폭죽이 터지고, 크리스마스에는 케익을 나눠 먹습니다. 사람들은 어떤 경우나 반바지에 T -셔츠를 즐겨입구요. 일부는 아주 세련된 의상이나

디자이너의 쿠르타를 입지요. 다른 사람들은 시원한 바지나 롱기, 혹은 머리에 재스민 꽃을 꽂고 사리를 입습니다. 이 모두는 여러분이 어떻게 집에 가느냐에 달려 있죠: 해가 진 후 자전거로 가나요? 속도 감속 지점을 오토바이로 지나서 간다고요? 차로요, 아니면 달이 솟아오니 걸어서 간다고요?

우리가 꿈꾸는, 오로빌에서의 삶은 언젠가 완전히 예술적으로 될 것입니다. 개개인은 모든 예술과 공예, 건축과 디자인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, 모든 것에 있는 아름다움을 자발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도시일 것입니다. 새로운 형태, 새로운 소리, 새로운 운동,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글쓰기가 자유, 미, 환희, 소박함의 이 모든 안에서 이 의식에 생명력을 불어주게 될 곳입니다.

탐구는 어떤 예술인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표제어입니다. 왜냐하면 오로빌은 아직 창조되어야 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. 이를 포착하고 조용히 있으면서도 역동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때때로 있는 작곡이나, 예술 전시회나 전시, 댄스,연극,멀티미디어로의 시도, 詩作, 새로운 디자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.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공간에 대해 우리가 꿈꾸도록 하는 것들입니다. 현재의 풍부함과 세계의 다양성으로부터 우주의 의식이 아직 더 제공해야 하는 풍요로움과 존재의 빛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